

박유하 교수(44, 세종대 일문과)의 《누가 일본을 왜곡하는가》(사회평론)는 좀 낯선 책이다. 출판·서점가에서 일본 관련서는 일정한 지분을 확보한 분야다. 하지만 평균적인 독자에게 널리 읽히는 일본 관련서는 비판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그런데 이 책은 일본을 적극 옹호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세종대 연구실로 박교수를 찾아 책을 펴낸 소감부터 물었다.

“연구자니까 논문집을 먼저 내는 게 순서다. 하지만 이 책은 필연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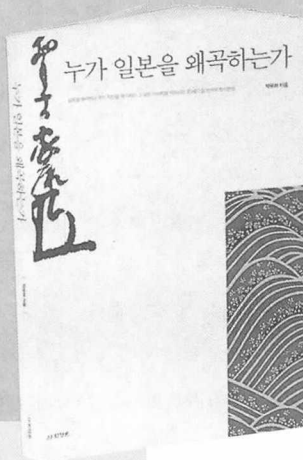
보기 드문 일본 옹호론

필연의 씨앗은 고교시절의 독서와 조기 유학이 제공했다.

“고등학교 때 읽은 다자이 오사무 소설에서 통념과는 다른 일본을 접하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고교 졸업 직후 막바로 떠난, 그 시절로는 비교적 이른 유학생활을 통해 일본 사회가 문제점은 있지만 피가 통하는 곳이라는 점을 느꼈다.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오해와 편견에 생각이 미치자 답답함이 몰려 왔다.”

이 책은 ‘일본’을 키워드로 20세기말 한국의 ‘정신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인의 일그러진 일본관이 타자와의 공존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의 발로다. 박교수는 근거가 확실한 반일과 일본 비판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반일 담론은 감정적이고 비약적이며, 실체가 모호한 허상에 기댄 것이 많다고 책의 머리말을 빌려 지적한다.

“문제는 일본을 왜곡하는 일이 실은 우리 자신을 왜곡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일본을 왜곡하는 글들은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피해의식을 공고히 하고 왜소한 열등의식을 버리지 못하도록 하고 과대한 우월감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회복되지 못한 ‘그들의’ 상처를 우리 모두에게 요구한 결과는, 우리 자신의 비틀리고 경직된 모



사회평론/A5신/240면/7500원

‘일본’이라는 거울에 비춘 한국인의 집단심리

《누가 일본을 왜곡하는가》 펴낸 박유하 교수

한 일문학자가 일본의 실상을 왜곡하는 우리 사회의 집단심리를 날카롭게 비판한 책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박유하 교수는 국내 필자들이 쓴 일본 관련 글들이 대부분 근거없이 민족적 우월감을 조장하면서 일본의 실상을 심하게 굴절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교수는 이같은 왜곡된 일본 이미지를 확대재생산하는 주요기제로 언론과 출판을 지목한다.

습이다.”

박교수는 왜곡된 일본 이미지를 확대재생산하는 기제로 언론을 첫손에 꼽는다. 역사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진행된 쇠말뚝 뽑기와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가 일으킨 한바탕 소동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부정적 이미지를 증폭시키는 데는 출판도 한 몫 단단히 하고 있는 것으로 박교수는 본다.

일본 관련 베스트셀러 조목조목 비판해

이에 박교수는 일본관련 베스트셀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이영희의 《노래하는 역사》(조선일보사)는 역사서술이 아니라 환편의 ‘소설’이다. 객관적인 형식에 턱 없는 우월감을 동반한 반일 이데올로기가 잠복해 있다는 것이다.

또, 전여옥의 《일본은 없다》(푸른숲)는 무지와 편견과 분노와 질시가 깔린 일본 성토기로 본다. 이 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오해와 왜곡이 빛은 타자에 대한 부정을 통해 자신을 긍정하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지적한다. 한편, 김진명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해냄)는 일본인보다 더 강한 한국인의 폭력성과 침략 기질을 확인시켜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물로 간주한다.

“이런 왜곡된 생각이 영향력이 없다면 무시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이런 책들의 파급력은 엄청나다. 젊은 학생들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아주 심각하다. 관념적이고 제한적인 일본 이미지에 계속 묶여두기 때문이다.”

박유하 교수는 일본을 파악할 때, 더 이상 개



박유하 교수

인과 계층의 차이를 간과하지 말자고 주문한다. 한일 관계에서 ‘공존이나, 반목이나’의 흑백논리를 탈피할 것도 제안한다.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화해를 바탕으로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모색할 시기다. 그러려면 우선 일본을 바로 알기 위한 기회를 늘려야 한다.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긍정과 부정의 양측면을 공정하게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박유하 교수는 일본의 비평가 가라타니 고진을 국내에 처음 소개했다.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민음사)을 기폭제로 고진 책이 잇달아 번역됐다. 하지만 박교수는 후속 번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고진의 《트랜스 크리티크》번역은 자신의 몫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도 당분간은 논문쓰기에 힘을 쏟을 작정이다. - 최성일 기자